

압해도의 교육과 각급 학교의 연혁

고 석 규

1. 머리말

『皇城新聞』 1899년 3월 24일자
를 보면 『島中設校』란 제목 아래에,

“羅州郡 金傲島 居하는 李榮圭氏가 該島
에 小學校를 設立하고자 同隣 崔殷卿 等 三
氏와 더불어 上京하여 學部에 認可를 請願
하는데 校中 經費는 諸氏들이 自當한다니
該部에서 응당 嘉尙히 여길터이라더라.”

라는기사가 실려 있다.

아마도 이 때 처음으로 섬에 소학
교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京居者는 鄉人을 下待하
고, 陸居者는 島民을 蔑視하여”라는
말이 있듯이 늘 천시 받던 섬에도 이
처럼 근대 교육의 싹이 내리면서 문
명의 여명이 밝기 시작하였다.

섬에서의 삶은 그 자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
만은 육지부 어디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1924년 1월, 하의도의 주민들은
토지 분쟁 소송에서 졌다.

그 결과 3백여 년을 경작해오던 땅
을 일본인에게 눈뜨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칼날 아래에서 “淚를呑하고
強制 和解에 屈從”하면서 화해 조건
을 내걸었다.

그 중 하나로 “도내의 교육을 위하
여 학교를 세우며”라는 조항이 들어
갔다.

3백년 경작하던 땅을 빼앗기면서도
끝내 얻으려 했던 조건의 하나, 그것
은 바로 교육이었다.

어떤 가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

〈표 1〉 압해면 초등학교 현황(1999. 10. 1현재)

학 교 명	학 급	학 생	교 원	일반직	기능직	특수지구분	비 고
압 해	7	166	12	2	2	도서다	
-매화분교장	3	15	3		1	도서다	
-고이분교장	2	8	2		1	도서다	
-마산분교장	3	7	3			도서다	
-쌍룡분교장	5	44	5		3	도서다	
압 해 동	6	86	8		3	도서다	
-가란분교장	2	6	2		1	도서다	
압 해 서	7	114	10	1	2	도서다	

※ 기간제 교사, 파견 교사 포함.

려 하지 않았던 교육,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교육,新安 섬의 하나인 압해도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만들어 온 압해도의 교육은 어땠을까? 주민들의 고뇌가 서려있는 압해도의 근대 교육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면, 20세기 압해도 주민들의 문명 개화의 정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별로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의 신설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2. 초등학교 교육-의무 교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1999년 10월 1일 현재 압해면의 초등학교 현황은 다음 표 1과와 같다.

지금도 물론 교육의 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라도 되는 데는 실로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다.

그 고비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자.

(1) 압해 공립 보통 학교의 개교

우리의 근대 교육은 한말에 싹텄지만, 일제 강점을 맞으면서 왜곡 축소되었다.

그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섬들에서 이루어진 근대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사실상 전부였다. 물론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다.

압해도에 열린 근대 교육의 첫 장은 일찍이 1909년 면장 朴炳洙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기사가 그 사정을 전한다.

“智島郡 押海面 面長 朴炳洙氏가 教育의 急務를 覺悟하고 金貨 二百餘圓을 出捐하여 校舍 二十間을 建築하고, 今年 一月부터 學

徒 六十餘名을 募集하여 熱心 教授하더니 不幸히 校舍가 因雨 顛覆하여 教授할 處所가 無한 故로 自己 家屋 十七間을 校舍로 許借하고, 又是 面長 手當 金百餘圓을 寄附하여 教育 事務를 期於 發達하고자 한다고 該面 人士가 莫不 稱頌한다더라.”

그러나 정작 실현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압해 공립 보통학교가 1930년 5월 9일 설립 인가를 얻었고, 그 해 6월 16일, 2학급 4년제로 역사적인 개교를 하였다.

1932년 8월, 압해도가 속해 있던 무안군의 통계를 보면, 보통학교 수는 15개교로 초등학교 就學 適齡 兒童 3만 4천여 명 중 불과 3,838명 만을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동이 3만 412명이라는 처참한 현상이었다.

더구나 취학 중에 있는 아동들도 계속되는 심혹한 농촌 피폐로 말미암아 굶주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매일 평균 5백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 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 수업료를 내지 못해 퇴학한 아동이 160여 명에 달하였고, 앞으로 5백여 명의 퇴학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1930~31년 동안 퇴학한 학생은 722명이었다.

이처럼 취학률이 불과 10%를 조금 넘는 정도였고, 그나마도 缺食 아동, 退學 아동이 천여 명을 헤아릴 만

큼 열악한 상태였다.

이는 무안군 전체의 통계인데, 신안의 섬으로 가면 그도가 더 심했을 것은 뻔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장리 수연 마을에 1939년 5월 12일 압해 공립 상설학교 부설 간이 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 그 달 30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41년 4월 1일에 압해 공립 국민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다시 1943년 4월 1일에는 압해 동 국민학교로 승격하여 지금의 동초등학교를 이루었다.

압해면에는 그밖에도 교육 기관으로 大川리에 大成書堂과 오룡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에 대하여는 ‘血書로 日章旗’를 만들어서 일선 장병에 보냈다는 별로 반감지 않은 기사 속에 보인다.

그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2) 의무 교육을 위한 시동, 분교장

신안 섬 주민들의 교육열은 해방 이후에도 물론 왕성했다.

조선 산악회가 연례로 개최하는 제 6회 사업인 다도해 학술 조사대가 1948년 8월 10일 목포를 기점으로 大黑山島, 紅島, 可居島(小黑山島), 莞島 등의 서남 해상의 도서를 일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열린 다도해 학술 조사대의 보고에서 '그렇게 빈약한 고도의 살림 가운데에서도 도처에 교육열만은 규모는 적을망정 대단히 왕성한데 감복치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여기 말 그대로 도민의 교육열은 왕성하였다.

그러던 중 金相述 면장의 부임으로 그 왕성한 교육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1955년 5월 20일자 『全南日報』를 보면 “模範面 指向 押海面 發展 顯著”라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무안군내 모범면을 지향하고 있는 押海面은 金相述 면장 부임 이래 동지서와 면의 회가 혼연 일체가 되어 동면 발전에 일대 현안 중이던 사업이 착착 진행의 과정에 오르고 있다.

즉, 작년도에 중학교 건축 사업을 비롯 120정보의 면염전 개발과 난민 정착 사업으로 25정보를 개발하였고, 난민 주택 40여 세대의 건축 그리고 중앙 초등학교 분교장 건축과 이어서 서부 초등학교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방금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동면의 약진상이 기대되고 있다 한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분교장의 건축, 또 기성회의 조직 등 실직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에 대한 의무 교육제의 완성과 맞물려 있었다.

사실 해방 이후 교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초등학교의 의무 교육이었다.

그래서 務安教育區에서도 의무 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웠다.

완전 수행을 목표로 우선 관내 각 국민학교 부족 교실 증축과 의무 교육제의 완성을 위하여 尹炯順 教育監을 비롯 각 과장 총 출동하여 각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 관계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김상술 면장에 의한 국민학교 교육여건의 조성은 이런 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족 교실 보충의 문제는 너무 어려웠다.

심지어는 “教室 補充에 싸가리판”이란 제목을 단 기사가 작성될 만큼 심각했다.

당시 사정을 “긴급 증축을 요하게 된 부족 교실 총수는 270교실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배당된 39개 교실만으로는 도저히 가당이 없으며, 비용의 그 4할이 학구민들의 부담이 되는데도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바 지방의 열의에 보답할 수 있는 당국의 대책이 요망하고 있다 한다.”라고 전하였다.

특히 섬은 더욱 심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分教場 설치였다.

그 사정을 보자.

“유인도와 무인도의 팔백 도서를

포용하고 있는 무안교육구 관내는 낙도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의무 교육에서 금단의 지역처럼 교육 시설의 미비로 아직껏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적령 아동들의 미취학자가 무려 3,175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무안교육구에서는 낙도지대에 분교장 서릿로써 의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안하여 지난 11월 13일 국회와 정부에 이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즉, 그 내용은 우선 20호 이상의 낙도 49개소에 분교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축비 금액과 시설비로 8천만환을 보조 요청함과 동시에 도서 근무 교원에 대한 벽지 수당 지불과 도서 지대 일수록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무안교육구 교원 인사 행정상 절대 요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 교육구에서는 신년도 개학기를 앞두고 의무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49개소 분교장 설치 계획에 의거 착착 설치 수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 신년도 예산에 도서 교육비가 계상되었다는 믿을만한 소기도 전하여 지고 있어 동청 관내 낙도 주민들은 하루빨리 교육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분교장 설치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3) 교육 방송국의 설치

또 라디오, 즉 교육 방송도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윤형순 교육감 시절에만 교실 80개의 중축 실적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컸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정부 보조의 일부를 할애하여 전지용 라디오 96대를 구입하여 각 학교에 배치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신안은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군이라 육지부의 교육과는 다른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입된 방법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방송이었다.

이런 시도는 교육 방송국의 개국으로 나타났다.

1974년 7월, 5천만환의 시설비를 들여 개국한 신안교육청 교육 방송이 개국하였다.

이 방송국은 낙도 교육을 위해 관내 105개 분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 도서 벽지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교육 방송은 1974년 2월 19일 오전 10시 시험 방송을 발사했다.

이날 첫시험 방송은 박越信 교육장이 직접 실시했고, 각 학교의 수신기는 FM 배터리레시바로 공지 사항

등을 수신했다.

教職 전문성 伸張을 위한 研修 放送의 성격을 띄고 있는이와 같은 신안 교육청 교육 방송국은 운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확정하였다.

즉, ① 교육 방송을 통하여 도서벽지 복식 교육의 질적 심화를 기하며, ② 연수 방송을 통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③ 행정 방송을 통하여 낙도 행정 통신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두었다.

방송 내용은 학습 지도 방송과 장학 연수 방송 행정 방송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 방송국은 1985년 11월 28일 폐쇄되었다.

한편 T·V 교육 방송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78년의 일이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은 1975년에 신안군내 섬 학교 아동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TV 교육방송국 설치를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라 美웨스턴하우스 기술진이 시설에 착수했으나 아쉽게도 기술적 실패로 중단하고 말았다.

(4) 1968년 의무 교육의 완성

이런저런 노력으로 사정은 크게 호전되었다.

1956년에 3,175명이던 미취학 아동이 1964년에는 약 270명 정도로 줄었다.

단순 수치 비교로 보면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실시한지 16년이 지난 때였다.

법적으로는 미취학 아동이 0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안의 섬은 아직 27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무안 교육청 관내 340여 유인도 중 65개 유인도의 농어촌 자녀들이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는 있지만 '270'이란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였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2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섬에는 본교 또는 분교를 설립하고 섬어린이들에게 의무 교육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65개 도서에는 19세대 이하의 유인도이었기 때문에 본교도, 분교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이 이듬해부터 65개 섬의 학령 아동들을 어느 일정한 곳에 집단 수용하여 교육시킨다는 계획이었다.

1967년도에도 학교가 없는 낙도 어린이 취학대책 수립을 세워 도교육 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계획을 보면, 20명 이상 취학 적령 아동이 있는 낙도에는 분교장을

설치하고, 학령 아동 20명 미만 지역 37개소는 순회 교사를 배치하여 의무 교육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68년에는 35개 학교없는 도서에 순회 교사가 19명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無校 島嶼에 산재한 미취학 아동수 224명이 비로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68년은 이런 점에서 신안의 교육사에서 획기할만큼 중요한시점이다.

마침내 신안의 섬 모두가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압해도의 사정을 보자. 압해도의 어린이들도 1946년 6월 7일 고이 초등학교 개교, 1953년 3월 1일 매화 초등학교 복식 2학급 인가. 1954년 4월 1일 압해교 서부 분교장 인가. 1955년 5월 10일 압해 동초등학교 가란 분실 설치. 1956년 4월 1일 효지 분교장 설치. 같은 해 7월 30일 서부 분교장 설치. 1958년 4월 21일 쌍룡 초등학교 개교. 1960년 4월 1일 매화 초등학교 마산 분교 설립 인가. 1962년 6월 30일 압해 서초등학교 분리. 1967년 3월 1일 쌍룡 초등학교 가룡 분교(2학급) 인가. 그리고 1968년 4월 23일 외안 분실 설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의무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

었다.

(5)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물론 이 때 이후라고 의무 교육 전에 이상이 없었던 것은 이니었다.

먼저 교사들이 문제였다.

지금은 그렇지만 섬에 부임된 교사들의 불만은 컸다.

무안군 교육청의 경우 1967년 한 해 동안 사퇴 교사수는 89명이고, 22명이 휴직을 했다.

사퇴 원인을 보면 75%가 타군 출신으로 임지 불만이 75% 62명이며, 결혼이 7명, 의병이 5명이며, 기타가 15명의 꼴로 나타났다.

이런 사퇴 교사의 55%가 도서에 부임된 교사들이었다.

이는 벽지 낙도의 교육 전망을 매우 흐리게 하는 현상이었다.

이 사퇴 교사의 빈 자리를 메울 교사들이 절대 부족했다.

즉, 교육청에서는 결원 보충을 위해 강사 채용 기준에 준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임시 조건부 강사로 채용할 것을 전남도 교위에 건의 하였다.

따라서 전남도 교위는 초급 대학 이상 졸업자를 선발 임용토록 하는 한편, 소요 예산을 교육 재정과에서 별도 승인 신청토록 했다.

그런데 동청 관내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9개 면에 7명에 지

나지 않고 이들이 대부분 도발령 국민교 강사로 채용 근무 중에 있어 건의에 따른 방법의 결원 보충은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결국 학급 담임이 없는 아동은 늘어갔고, 그결과 의무 교육 수행에는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무안교육청에서 창안한 낙도 보조 교사 제도는 1964년 9월부터 문교부 승인을 얻어 월 3만원씩 보조 교사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채택하면서 1천원을 인하한 2천원씩 지급함으로써 보조 교사들의 불평을 샀다.

부설 교원도 문제였고, 낮아지는 교사의 자질도 문제였다.

1970년 신안군 교육청 관내 740명의 교사 중 45%인 325명이 비사범계인 일반대학 및 양성소 등의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나마 교육 경험마저 4년 미만의 교사들이었다.

따라서 교사 진영의 약체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 신안군 교육청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방침의 강화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한 학습 지도의 과학화를 위해 장학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행정 및 교원 연수원에 235명의 교사를 수강 시켰으며, 분교장 근무 22명의 교사 협의회를 지난 8월에 가졌고, 면별 연구회는 10개면 소재 학교에서 38개교가 참가하여 8개 교과에 연구 발표를 했다.

그리고 ② 국민 교육 헌장 이념 구현 연구를 위해 압해 동교 등 5개교에서 교과 담임제 및 반공 도덕의 통합지도 연구회를 가졌고, ③ 교육의 사회화 추진에 있어 애향단 및 마을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현재 애향단 운영은 60개교, 마을 교실 그리고 마을 방송 운영 등이 43분교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또 벽지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 면 단위 협력 연구 체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1990년의 조사에 따르면 섬지방 교사 38%가 전출을바라고 있었다.

이처럼 섬지방 학교 교원의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까닭은 지난 1975년 최고 25점에 이르던 도서벽지 가산점이 하향 조정되어 1990년에는 2.5점(시도교위 자체부가점 3점 제외)으로 낮춰진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체 교원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택 부족 등 숙식 불편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도 도서 벽지 근무 수당도 1990년 현재 월 7천원 내지 1만 3천원밖에 안돼 생활 환경을 보장해 줄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들이 현격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서 근무 기피 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이고 섬 주민들조차도 섬학교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1978년의 사정을 보면, 가장 기초적 교육 시설인 교실의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976년 이후 도교위의 교실 신축비 지원이 없어 한칸의 교실도 신축하지 못해 극심한 교실 부족을 겪고 있었다.

신안군 교육청은 관내 106개 초등학교(분교 포함)가 보유한 교실은 총 775개 교실인데 재학생 33,750명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209개 교실이 더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섬어린이들은 수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다.

교실의 숫자 부족에 겹쳐 또 큰 문제는 노후화였다.

교실이 대부분 30년 내지 70년 전(1981년 기준)에 건립된 것들이고 염분에 약한 시설재료로 축조돼 있어 해풍이 심한 섬에서 쉽게 부서지고 망거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비가 새는 등 전체 교실의 30%가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으로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1970년 현재 체육 시설도 겨우 규정의 9%밖에는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낙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신장 및 체중이 전국 평균치에 미달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나마 일부 학교는 운동장마저 비좁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어려움은 섬어린이들의 보건에도 赤信號를 보였다.

즉 1965년 기사를 보면, “무안 교육청 관내 낙도 어린이들은 빈약한 교육 시설에다 무의촌에 있으므로 일년에 신체 검사 한 번 못해 보건상 위험을 받고 있다.

동교육청 관내는 본교에서 20, 30리나 떨어진 분교가 42개소에 달하고, 분교마다 17명에서 8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교실난으로 복식 수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의료 시설은 물론 이발소까지 없어 뜨내기 무뎠히 이발사로 아동들의 머리는 기계독에 감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의 피부병도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안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양호 교사를 대동하고 순회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어려운 섬 교육을 위한 정부

조처에 하나로 육성회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즉 1972년에 관내 도서 벽지 초등학교 육성회를 없애고 정부로부터 육성회 국고 전환금으로 1,669만원을 배정 받기로 하였다.

이는 섬 교육에는 그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일부의 성과로 보인다.

한편,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무질서하다고 느낄만큼 많은 동상들이 서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섬 학교가 학교 공원화 등 환경 조성을 구실로 세워 놓은 것들이었다.

물론 그 동상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기증자의 몫이었고 이름을 세겨주기 때문에 위세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각종 동상들이 잡다하게 또 조잡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금 낭비에 그칠 뿐이었다.

그래서 신안군 교육청에서는 관내 106개 섬학교에 資金 절약과 內實化에 力點두기 위해 동상 건립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억제 조치였

다. 1970년대 이후에 이 무렵 학교에서 교육

(6) 줄어드는 인구, 통폐합의 기로에 선 신안 교육

1970년대까지 주로 의무 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학교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던 신안의 초등 교육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 인구 감소 현상으로 뜻밖의 위기를 맞는다.

신안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었다.

1988년 22,381가구에서 1989년 말에는 581가구가 줄어든 201,800가구였고, 지도읍을 제외한 인구수는 1988년 103,386명에서 2,892명이 줄어든 100,494명이었다.

이처럼 매년 도서 지방 인구는 줄어들었다.

이는 자연히 취학 아동의 숫자를 줄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1990년부터 6학급 이하의 고등학교를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와 통폐합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우선 해당 학교인 임자중고의 학부형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문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던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폐합 연장 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한 통폐합은 초등학교가 가장 심각하고 또 빨랐

다.

인구 감소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경비 지출은 늘어나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가 우선이지 효율성을 먼저 따질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은 이런 이상을 이상대로만 운영할 수 없게 했다.

한편 교실과 같은 시설 문제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즉 이제는 과, 부족 현상이 문제였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서는 교육 시설이 남아돈다.

실제로 80여 개 교실이 남았다. 그러나 押海, 智島 등은 오히려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 한칸을 반쪽씩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정은 이렇게 이중적인데 교육 시설의 중, 개축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현지 사정이 무시되면서 낭비하는 그런 꼴을 연출하기 십상이었다.

이런 저런 사정들로 인하여 현재 신안 섬 초등학교 교육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에 있다.

이는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합운

영'을 규정하고 있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시설,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통합 여부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 거리 및 통합 운영 대상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주민의 의사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신안에는 이농, 이어 현상에 따라 학령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가 영세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로는 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곤란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통, 폐합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였다.

현재 정해진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 폐지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이고, 분교 폐지는 학생 수 10명 이하이며, 분교장 격하는 학생 수 50명 이하이다.

이런 기준대로 모두를 통, 폐합한다면 신안의 경우, 대상 학교 수가 본교 폐지 16교, 분교장은 흥도 분교장을 제외한 33개 분교장이고, 분교장 격하는 3교가 해당되며, 존속하는 학교는 14분교, 4분교이다.

압해도에도 이미 압해 북분교장이 폐교되었고,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등의 변화를 크게 겪었다.

교육 재정적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아들 소규모 학교의 통, 폐합 추진이 마땅하나 폐지로 인한 학구민들이 겪을 정신적, 문화적 상실감 등은 학교가 존속함으로써 발휘되는 애교, 애향심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 등으로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섬도 동등한 국토의 일부이고, 섬주민도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비용 문제를 생각하기전에 섬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이란 어차피 사회 생활을 위한 것일진데 한

두 명으로 이루어진 학급에서의 교육을 통해 얼마나 사회인으로 설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7) 병설 유치원 현황

한편, 예전에는 생학할 수 없었던 교육이지만, 지금은 거의 의무 교육화 되어 있는 유치원까지도 제법 모양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99년 10월 1일 현재 압해도의 유치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압해면 병설 유치원 현황(1999. 10. 1 현재)

병설 유치원명	하 급	원 아 수	교 원	비 고
압해 초등 학교 병설 유치원	1	6	1	
압해 초드 학교 병설 매화 분교장 유치원	1	8	1	
압해 초등 학교 병설 고이 분교장 유치원	1	6	1	
압해 초등 학교 병설 쌍룡 분교장 유치원	1	6	1	
압해 동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1	10	1	
압해 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1	10	1	

(8) 압해면 소재 초등 학교 연혁

압해면 소재 초등 학교의 간략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압해 초등 학교

1) 연 혁

- 1930. 5. 9:압해 공립 보통 학교 설립 인가.
- 1930. 6. 16:개교(2학급 4년제 편

성), 동서리 소재.

- 1938. 4. 1:압해 심상 소학교 개명.
- 1939. 5. 30:부설 신장 간이 학교 분리(입해 동교)
- 1941. 4. 1:압해 공립 국민 학교로 개칭(6년제 편성)
- 1949. 4. 1:압해 초등학교 개칭
- 1956. 4. 1:효지 분교장 설치.
- 1956. 7. 30:서부 분교장 설치.
- 1958. 4. 1:쌍룡 초등학교 분리.
- 1962. 6. 30:압해 서 초등학교

- 분리.
- 1966. 4. 1:부설 청소년 직업학교 개설.
- 외안분실 설립.
- 1969. 3. 2:도 지정 실과 연구 학교.
- 1970. 2. 28:부설 청소년 직업학교 폐교.
- 1970. 1. 16: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주최 초등부 남녀 베드민트 우승
- 1973. 3. 2:군 지정 안전 교육 연구 학교
- 1974. 6. 15:신안군 교육청 주최 새모습 학교 가꾸기 우수상.

② 특기 사항

교정 남방에는 智軒 羅吉煥 校長 功績牌가 서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智軒 羅吉煥 校長 功績牌

- 本貫:錦城 全羅南道 智島邑 甘井里 出生
- 西紀一九二二年 四月 二十八日生
- 略歷:京城師範學校 講習科 修了. 朝鮮大學校 法政大 法學部 二年 修了. 四十六年間 教育에 奉職 押海初等學校 第十五代 校長으로 停年 退任 押海初等學校 智軒獎學會 設立 國務總理勉勵褒章 文教長官年功賞 大韓教育聯合會模範教育家族賞 國民勳章 冬栢章 全州後人 毅松正泰讀書

- 向右側面:西紀一九八七年 八月 二十一日 設立推進委員會 委員長 金洪南 副委員長 李京準 金福培 韓達珍 朴銀淑 趙明吝 裴錫禮
- 向左側面:當時 在職 教員 校監 鄭永根 教師 金達成 尹向湑 趙政皓 崔龍洙 崔官燮 朴順子 高在述 李基洙 朴成泰 崔炳萬 申喜奉 金武英 姜聖集 金京美 金點碩

② 압해 초등 학교 매화 분교장

1) 연혁

- 1953. 3. 1:매회 초등학교 복식 2학급 인가
- 1953. 5. 1:매회 초등학교 개교. 매회리 대동 마을 동편 소재.
- 1980. 3. 1:마산 분교 3학급 편성.
- 1987. 3. 2:매회 초등학교 1학급 병설 유치원 인가.
- 1987. 3. 10:병설 유치원 개원.
- 1992. 3. 1:학생수 감소로 압해 초등학교 매화 분교장으로 격하.

③ 압해 초등학교 고이 분교장

1) 연혁

- 1946. 6. 7:고이 초등학교 개교. 고이리 2구.
- 1984. 9. 1:고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개교.
- 1993. 3. 1:학생수 감소로 압해 초등학교 고이 분교장으로 격하.

④ 압해 초등학교 마산 분교장

1) 연혁

- 1960. 4.1:매화 초등학교 마산분교 설립 인가.
- 1960. 4. 15:개교(1학급). 매화리 마산도.
- 1965. 3. 1:2학급 인가.
- 1980. 3. 1:3학급 편성 인가.
- 1992. 3. 1:고이 초등학교 마산분교로 개칭.
- 1992. 3. 1:2학급으로 감축.
- 1993. 4. 1:압해 국민학교 마산분교로 개칭.

⑤ 압해 초등학교 쌍룡 분교장

1) 연혁

- 1958. 3. 24:쌍룡 초등학교 설립 인가.
- 1958. 4.21:개교. 복룡리 신대마을 복편.
- 1958. 9. 25:孝池분교 편입(압해교에서).
- 1958. 10. 8:政淳杰 초대교장 취임.
- 1967. 1. 1:駕龍분교 설립 인가.
- 1967. 9. 1:가룡분교 개강.
- 1970. 3. 1:압해 초등학교로 승격 분리(가룡분교).
- 1989. 2. 15:제31회 졸업식(졸업생 총수 2,136명).
- 1994. 3. 1:효지분교 폐교.

- 1999. 9. 1:학생수 감소로 압해 초등학교 쌍룡분교장으로 격하.

⑥ 압해 복분교장(폐교)

1) 연 혁

- 1957. 3. 1:상룡 초등학교 가룡분교(2학급) 인가.
- 1967. 8. 20:2개 교실 신축.
- 1967. 10. 5:개교. 가룡리 2구 원가룡 사북방.
- 1970. 3. 1:압해 초등학교로 승격.
- 1989. 3. 1:학생수 지연 감소로 압해 초등학교 복분교로 격하.
- 1990. 3. 1:3학급 배당.
- 1992. 3. 1:학생수 감소로 폐교.

⑦ 압해 동초등학교

1)연 혁

- 1939. 5. 12:설립 인가.
- 1939. 5. 30:압해 공립 상설 소학교 부설 간이 학교로 개교. 신장리 수연 마을 520-25.
- 1941. 4. 1:압해 공립 초등학교로 부설 간이학교.
- 1943. 4. 1:압해 동초등학교로 승격.
- 1975. 3. 1:시범 협력학교 지정.
- 1981. 7. 15:문교부 지정 자료실 시범학교.

2) 특기사항

1976년 5월 20일자 『전남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하다.

國民憲章塔 건립해줘

押海東校 同門會, 學父母 성금.

신안군 압해 동국민학교 동문회와 76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들은 국민 헌장 탑과 어린이 헌장탑을 학교에 건립해 주었다.

이들은 15만원의 성금을 모아 국민 헌장탑과 어린이 헌장 탑을 학교에 건립 지난 14일 제막식을 가졌는데 동초등학교 관내 학부모들은 평소 교육열이 높아 서로가 학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⑧ 압해 동초등학교 가란분교장

1) 연 혁

- 1955. 5. 10:압해 동초등학교 가란분교 설치. 가란 마을 남쪽 200미터 지점 96번지.
- 1956. 5. 10:압해 동초등학교 가란 분교장 설립 인가.
- 1957. 3. 25:가란 분교 제1회 수료식 거행.
- 1964. 3. 20:2학급 6년제 설치.
- 1972. 3. 1:문교부 지정 복식 교육 연구 학교 지정.
- 1977. 11. 29:도지정 복식 교육 수업 공개회.
- 1987. 10. 5:분교장 2개 교실 개축 준공.

2) 특기 사항

동초등학교까지 통학에 지장이 막심함을 해결코자 1955년 당시 이장

장호석씨는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회관을 분교실로 사용키로 결정. 김길도 교장과 상의. 김정만 교사를 출장 근무케 하여 시업식을 거행. 1958. 3. 15 신축 교사로 이사하여 수업함. 1963. 3. 26 장성용씨 땅 600평 회사 받아 운동장을 확장.

⑨ 압해 서초등학교

1) 연 혁

- 1954. 4. 1:압해교 서부 분교장 인가.
- 1962. 6. 30:압해 서초등학교 개교. 압해면 대천리 반월 마을 동쪽 대로변 평지.
- 1978. 3. 1:문교부 지정 급식 학교.
- 1982. 3. 1:체육부 지정 급식 학교.
- 1984. 6. 5:병설 유치원 개원.

2) 특기 사항

학교 교문을 鄭錦龍(73. 3.~85. 2까지 기성회(육성회) 회장 역임)씨가 200여 만원을 들여 기증함.

기타 지금은 이미 폐교되어 사라졌지만 교육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押海 公立 高等 公民學校였다.

이 학교는 1947년 6월 압해 공립 고등 공민 학교로 설립 인가를 얻었고, 압해 초등학교 부설로 교실 1간

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초대 교장은 金容澤, 설립 기성회장은 崔仁燮이었다.

그 후 1949년 월포리 소재 馬車組合 建物を 개축하여 교실 2간, 직원실 1간을 마련하여 이사하였다.

다시 1954년에는 大川里 金晚洙씨가 교실 2간을 건축하여 희사하였고, 鶴橋里의 최인섭씨가 역시 부지 520평을 희사하였다.

1950년부터 제1회 졸업생 37명을 배출하여 제14회 졸업생까지 모두 560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維持 財團이 부족하여 경영난에 봉착하였고, 결국은 1963년 신안군 교육 위원회에서 폐교를 명하였다.

3. 중학교 교육 - 중등 교육의 시발점, 압해 중학교

(1) 신안군의 分郡과 압해 중학교 설립

1999년 9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는 14개교이고, 1개교가 있다.

모두 공립 학교로 1면 1개교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교육의 초점이 초등학교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관심을 중학교에까지 높여 주었다,

압해도에 중학교를 세우려는 시도는 일찍이 1954년에 金相述 면장이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중학교 교육의 계기는 신안군의 分郡을 전후하여 마련되었다.

1969년에 종전의 무안군을 육지부와 도서부로 나누어 육지부를 무안군으로 잔존시키고 도서부를 신안군으로 신설하는 분군이 이루어졌다.

분군에 다른 법률이 제2059호로 공포되어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도 도서부만 관할하는 신안군 교육청으로 새로이 개칭되어 도서 교육 진흥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전환기적 변화는 중학교의 신설로 나타났다.

신안군 교육청이 신설되는 바로 그 해에 신안군 교육청은 뒤져 있는 관내 낙도 교육의 진흥책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 위원회에 건의했는데 그 천 번째가 『낙도 교육 진흥의 기본 대책』이었다.

그 내용은 “압해 중학교와 증도 중학교를 신설하여 1969년부터 3년 내에 교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될 예산으로 국고 보조 1천 5백 만원을 지원해 줄 것과 부지 7천 평 구입비 280만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압해 중학교의 신설이 교육청의 기본 대책으로 제기되기에 이르

렸다.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진학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찍이 1965년도의 사정을 보자.

“도시와 농어촌의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학율은 너무나도 많은 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목포시와 무안군을 대조해 보면 목포시는 83%로서 거의 대다수의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무안의 농어촌은 43%로 목포시의 2분의 1밖에 안되는 숫자로서 도시와 농어촌의 현 생활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 농어촌의 현재 궁핍한 생활을 증명하고 있다.”

라는 기사에서 보이듯이 겨우 43% 수준이었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해서 1968, 69년을 정점으로 추진된 신안군 관내 중학교 신설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3월 1일 안좌 중학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1947년 11월 27일에 사립 장산 중학교가 설립 인가를 얻었고, 다시 안좌 중학교가 1952년 3월 31일 개교하면서 신안의 섬들에도 중등 교육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로 다른 섬에 중학교 설립의 성과가 쉽게 뻗어 나가지는 못했다.

지명 중학교가 1959년 4월 30일에 문을 열었고, 1960년대로 가면 비금 중학교(1966. 3. 1), 임자 중학교

(1968. 3. 15), 압태 중학교(1968. 3. 2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압해에는 1970년 3월 12일(설립 인가는 1969년 10월 14일)에 압해 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그보다 더 늦게는 증도 중학교(1971. 3. 12), 흑산 중학교(1973. 3. 1. 단, 이보다 전에 있었던 사립 성모 중학교는 11회 졸업생을 내고 폐쇄되었다.), 팔금 중학교(1974. 3. 8. 처음에는 1972년 3월 8일 안좌 중학교 팔금 분교로 개교), 도초 중학교(1977. 1. 20. 단, 인가는 1964. 2. 10), 신의 중학교(1979. 3. 19)가 문을 열었다.

장산 중학교는 1982년 3월 26일에 공립으로 바뀌어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중학교의 신설로 진학 자체가 어려움은 해결되었다.

1971년 신안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희망자수는 졸업 예정자 5,457명의 54%인 2,963명과 전년도 졸업한 272명의 아동 등이었다.

이때 이들의 수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은 없었다.

다만 관내 외딴섬인 소흑산 초등학교 등 13개 교와 대풍 분교 등 49개 분교 아동 382명이 해당 군이나 본섬 중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포시 학교군으로 진학하게 조치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중학교의 수용 능력은 늘어

났는데 이제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즉 섬 중학교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였다.

섬 주민들이 섬 중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한다는 사실이었다.

1971년 신안군내 12개 중학교의 입학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각 학교가 모두 모집 정원에 미달되고 있었다.

45학급에 2,600명 정도만이 지원했을 뿐이었다.

어찌 보면 기껏 만들자고 외칠 때는 언제고 만들어지니까 안 보내는 까닭은 도대체 뭐가 라고 불만을 터뜨릴 만도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그건 앞서 초등학교 부분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사 자질, 교육 시설 등 제반 교육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었다.

그러지만 한편에서는 교육 진흥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돋보였다.

바로 압해 중학교의 이야기였다.

1971년 3월 19일자 『전남일보』 전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자.

“신설교인 신안군 압해 중학교에 압해면 출신 재일 교포들이 1백여 만원의 성금을 보내와 관사와 우물 등 부속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압해 중학교는 70년도에 개교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학교 부

속 건물 등을 마련키 위해 동교 추진회장 朴南述씨와 부회장 金相述씨 등이 70년 7월 압해면 출신 재일 교포들에게 고향의 2세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도록 진정 하여 교포들이 120만원을 보내왔으며, 동면 출신 서울대양증권회사장 김동만씨가 30만원, 압해면 강윤태씨가 10만원, 공화당 신안군당 위원장 정판국씨가 7만원 등을 기탁 동교에 관사와 우물, 변소, 운동장 확장 등을 하게 되어 면민들은 흐뭇해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인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재일 교포들이 1백여 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내는 쾌거도 있어 어려운 압해 교육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① 압해 중학교 연혁

압해도의 유일한 중학교이자 중등 교육의 시발점, 압해 중학교의 간추린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 혁

- 1969. 10. 14:압해 중학교 설립 인가(6학급).
- 1970. 3. 12:개교 및 입학식, 학교리 월포 마을 소재.
- 1977. :새마을 교육 활동 우수상(문교부장관).
- 정서 순화 교육 우수상(교육감).
- 1978. 10. 1:학칙 변경으로 21학급 인가.
- 1979. :전남 학도 체육대회 우수상(교육감).

- 1989. 10. 16:도 지정 과학과 시범학교 운영 발표.
- 1990. 2. 15:제18회 졸업(273명) (총 5,387명).
- 1990. 11. 7:도 지정 미술과 시범학교 운영 발표.
- 1992. 11. 12:도 지정 기술, 가정과 시범학교 운영 발표.
- 1993. 9. 1:전남 기술 교육 시범학교 우수상(교육감).
- 1995. 10. 10:컴퓨터 시범학교 운영 발표. 우수 시범학교 운영 교육감 표창.
- 1996. 3. 2:수학과 도 지정 연구학교, 국악 시범 학교, EDUNET 시범 학교 운영.
- 1996. 12. 25:학교 경영 실적 우수 학교 표창. 우수 학교 교육부장관 표창.
- 1999. 2. 13:제27회 졸업(총 6,968명).

2) 특기 사항

교정의 동편에 서 있는 『春軒 李俸憲 功績碑』가 압해 중학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春軒 李俸憲 功績碑

오늘날까지 흠과 농민을 벗삼아 이 고장 교육 발전에 바쳐 온 선생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선생은 분면 동서리에서 一九三四年 一月 十四日 이돈상씨의 외아들로 태어나 一五

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고독하게 자랐으나 어려서부터 독특한 의협심과 슬기로운 예지가 있어 오늘을 낳게 하였다.

보시라! 면사무소가 자리를 잡은 이 혈통에 하나의 웅장한 건물이 우뚝 솟았으니 이곳이 바로 우리 고장 어린 별들을 가꾸는 유일한 압해 중학교인 바 이는 선생이 一九六九年 三月 五일에 압해 중학교 설립 추진 위원장으로 선임되자 학교부지 二二八七평의 기증과 더불어 가진 애로와 역경을 극복하여 가며 빠른 시일에 설립 인가를 얻었으며, 一九七一年 三月 八일에 육성회장으로 피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동장 5,000여 평의 확장과 정지 공사를 수차례 걸쳐 완성하였고 그밖에 교원 숙사 二동 건립 공사와 교사 동편 100m 축대 및 운동장 주위 스텐드 공사 230m를 추진하였으며 또 학생 기숙사 一동을 기증하여 학생 복지 시설을 갖추어 다른 중학교에 못지 않게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선생의 험격한 봉사 정신과 피어린 골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발전을 없었을 것이기로 우리 면민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선생의 이 천추만대에 빛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길 바래 그 공적의 편모를 이 비에 새겨 후진들에게 알리노라.

•向左 側面

推進 委員長:崔仁燮

副委員長:白錦汶 李秉春 金吉彦

千石來 朴福甲 金子明

姜柱遠

總 務:千富東

財 務:文一浩

委 員:金世植 金東述 丁得洙

金行奎 曹喜烈 鄭今龍

金炳現
 顧問:趙貴童 金石進 吳在秀
 崔四岩 姜昌達 吳今烈
 朴鍾殷 金云泰 金斗滿
 鄭公明 韓京洙 金相述
 朴鍾研 尹吉鎬 梁昌吉
 千京秋 姜洪栗 張甲植
 金龍石 金容來 鄭承學
 金種彩 朴朴容
 部落委員:金貴南 丁悌鎬 吳玉錫 外
 74명
 (계 114名)

·向右側面

部落委員:40名

中學校:朴學基 外 職員 一同

幹事:高裁根

一九七五年 八月 十八日 建立

4. 고등학교 교육 - 압해 종합 고등학교 건립으로 매듭

1999년 9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7개교이다.

모두 공립학교이며, 도초고 1개교
는 인문 고등학교이며, 나머지 6개교
는 종합 고등학교이다.

신안에 가장 먼저 고등학교의 문을
연 곳은 안좌였다.

안좌종합 고등학교는 1974년 12
월 27일 인가를 받아 1975년 3월
10일에 신안의 섬에서는 처음으로
개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도초 고등학교가

1978년 1월 31일에 인가를 받아 그
해 3월 17일 문을 열었다.

도초고가 신안에서는 처음이자 유
일한 인문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뒤를 이어 터를
잡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였
다.

지명 종합 고등학교(1982. 1. 15
인가. 3. 12 개교), 압해 종합 고등
학교(1982. 4. 19 인가, 1983. 4.
9 개교), 비금 종합 고등학교(1984.
11. 27 인가), 임자 종합 고등학교
(1985. 4. 25 인가, 1986. 3. 10
개교), 하의도 종합 고등학교(1986.
3. 12 개교)의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학교가 1980년 이후에
세워졌음과 또 종합 고등학교라는 점
이 눈에 띈다.

섬에 고등학교 교육의 문은 가장
늦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가능했
던 일이었고, 거기에 압해도도 물론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합 고등학교
가 많이 세워졌을까? 거기에는 진학
희망자들의 희망 사항이 반영되어 있
었다.

1973년 신안교육청 관내 12개 중
학교 졸업 예정자 중 62%가 실업
고교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합 고등학교의 신설은 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
맞추어진 결과였다.

압해를 대표하는 최고 교육 기관

압해 종합 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에 관해서는 1983년 4월 9일자 추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건이 있어 참고가 된다.

그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 압해 중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학교 앞 서편 대로변에 서 있는 『岫亭 金相述 會長 功績碑』와 『湖雲 李文九 施惠 記念碑』가 있어 많은 부분을 대변해 준다.

그 공적비의 내요을 옮기는 것으로 그 설립의 대강을 알기에 충분하다.

5. 압해 종합 고등학교 설립 추진 상황

- 1981. 4. 1: 국무총리령 전국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 시달(82~86년).
- 1981. 5. 1: 가칭 압해 종합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위원 위촉(84년 개교 예정)
신안군수, 신안군 교육장, 압해면장
- 1981. 6. 25: 학교부지 확보 위원 명단 보고.
이장 최용 외 34명.
영농회장 양도인 외 41명.
방위협의회 위원 면장 조기백 외 18명
지방 유지 17명.
계 113명
- 학교 부지 확보 위원회에서 학교 부지를 압해면 학교리 667번지 일대가

가 적지로서 5,000평을 확보하겠다는 보고서를 신안군 교육청에 제출.

- 도 교육위원회에 질의서 발송.
본면에 고등학교 설립은 84년도 개교 계획에 들어 있으나 김상술 수정 장학회장이 기왕이면 1년 앞당겨는 목표를 세워 도 교육위원회에 질의하였는 바.
- 1981. 11. 13: 교육감 회신 접수.
82년 가을까지 부지 5,000평 이상 확보, 부지 정지, 숙직실, 창고 2칸, 급수 시설 등 부대 시설을 자체 부담으로 갖추면 83년 동안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고 1년 앞당기는 목표를 세워 제반 사업을 추진키로 함.
- 1981. 11. 13: 신안군 교육장으로 부터 6월 25일 보고된 선정 부지를 부적합하다는 일부 인사의 건의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통보해 음.
- 1981. 11. 21: 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당시 상황으로는 84년 개교 예정이었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의 구성이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정 장학회장 김상술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조기백 면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1981. 11. 21: 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에서는 당초 선정 보고된 압해면 학교리 67번지가 적지라는 것을

확정하고 재보고함.

•제1 희망지:압해면 학교리 677번지

•상대 농지로서 농지 전용 허가가 용의함.

•교통이 편리함 - 학교 진입로를 신규 가설할 필요없이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도로 개설로 인한 사업비가 절감됨.

•급수 시설이 용이함.

•부지 정지가 용의하여 사업비가 절감됨.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방 도로와 군도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의 소음이 없어 조용함.

•제2 희망지 - 압해면 동서리 지선

•절대 농지로서 농지 전용 허가가 불가능하며, 허가 신청시 토지 조성비가 평당 5,000원 이상 적립을 요함.

•고지대로서 부지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부담이 큼.

•학교 진입로의 별도 개설을 요하며, 사업비 부담이 과중됨.

•급수 시설이 곤란함.

•제1희망 지보다 당 매입비만도 3배가 소요되는 실정임.

•대로변의 여건 때문에 주위 환경이 산만하여 학업에 소음 등으로 지장이 초래됨.

•1982. 2. 12:부지 선정에 대한 하

남호 교육위원회 위원의 현지 확인 결과 제1희망지인 압해면 학교리 677번지가 적지라는 판정 통지를 받음.

•1982. 5. 4:부지 매입비 조성 추진.

추진 위원회 구성부터 개교까지 모든 비용을 수정 장학회 김상술이 전담키로 하고 압해면(낙도 제외) 본도의 호당 1만원씩(영세민, 생보자 제외) 2,000여호에 2천여만원을 각출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징수가 부진하여 우선 압해단위 농협장과 이장단의 결의를 얻어 할당 금액의 60% 상당에 해당하는 1,200여 만원을 농협 출자 배당금에서 징수하였으나,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여 김상술 회장이 난관에 봉착, 고심 중 재일교포인 이문구 회장이 귀향 산소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자 조기 백 면장, 이기 평통 자문위원과 동행 방문 접견, 간절히 협조를 요청했던 바 즉석에서 일하 500만원(1,500만원)을 회사 학답을 받음으로써 부지 매입이 이루어짐.

•1982. 5. 4:문교부 장관의 설립 허가 승인.

82. 2. 26일자로 신청한 문교부장관의 학교 설립 신청에 대한 승인을 (82. 4. 19 장관 승인) 동시에 받음. - 신안군 교육장으로부터.

•1983 3. 1:개교 예정 통지서 받

음.

6. 학교 건축 추진

- 1982. 7. 1: 기공하여,
 - 부지 정지 작업.
 - 숙식실 건축.
 - 창고 승인.
 - 우물 시설(급수 시설).
 - 환경 정리.
 - 학교 건축 감독 등 83년 3월 9일 준공되기까지 김상술은 건축 과정을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마무리까지 4, 5회 현장에 나가 일일이 적립 감독하여 학교 건축 완성에 이르렀음.
- 1983. 4. 9: 학교 설립 유공자 표창(준공식 때)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감사패 - 김상술 고문.
 - 신안군 교육장 감사패 - 박경양 총무.
 - 압해면민 일동이 수여한 감사패
 - 추진위원회 고문 - 김상술
 - 회장 - 조기백
 - 부회장 - 김원호
 - 총무 - 박경양
 - 감사 - 문일호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의 발상부터 개교까지 주도해 온 수정 장학회장 김상술은,

- 후진 교육을 위해 아곳 낙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보겠다는 일념으로 사업비 확보, 부지 확보, 면민 참여도 저하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분히 추진하여 왔고,
- 부지 정지, 숙식실 건립, 창고 건립, 급수 시설 등을 추진하는데 설계상으로 나오는 사업비가 2,700만원(면민 부담)이었으나 업자를 설득하여 6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청부케 해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절감, 면민의 부담을 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 재일교포 이문구 회장에게 강력히 교섭하여 1,500만원을 회사 받는데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올렸음.
- 기타 추진하는데 소요된 경지 일체를 김상술 회장의 부담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음.
- 개교 1년 앞당기기 구상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농촌 고등학교 설립의 문교부 계획이 변경되어 본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하였을 것임.
- 추진위원회 구성, 부지 선정, 업자 선정 등 기반 사업 추진시 각계 각층의 반대와 이견이 분부하여 본 사업 추진이 중지되는 직전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초지
일관 추진하여 후진 양성의 전
당인 압해 종합 고등학교 설립
을 하게 되었음, 끝.

1983년 4월 9일

작성자 추진위원회	회 장	조기백
	부회장	김원호
	총 무	박경양
	감 사	문일호